

## KIA 팬 뜨거운 응원 열기... "0-1 뒤졌지만, 역전할 것"

KS 1차전 광주 곳곳 열띤 응원전 거센 비에 경기 중단 아쉬움 토로  
이들 연기... 숙박업소 예약 변경  
"정규시즌 1위의 위용 보여주길"

한국프로야구 전통 명문구단인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달빛시리즈' 1차전이 펼쳐진 지난 21일 광주에서는 거센 비도 막지 못한 뜨거운 응원전이 이어졌다. 6회초 KIA가 0-1로 뒤진 상황에서 우천으로 경기가 중단되며, 포스트시즌 사상 초유의 서스펜디드(일시중단) 게임이 선언됐지만, 팬들은 역전승을 기대하며 응원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KIA타이거즈와 삼성라이온즈의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1차전을 30여분 앞둔 21일 오후 6시께 찾아온 광주 동구 불로동의 한 영화관에는 빨간 모자와 유니폼을 맞춰 입은 야구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광주지역 연구구단인 KIA타이거즈의 승리를 응원하기 위한 타이거즈 팬들의 장외 응원전이 열린 것이다.

경기 시작시간인 6시30분이 다가오자 상영관 내부는 타이거즈 팬들로 가득 차고, 이들은 숨죽인 채 시리즈 개막 선언을 기다렸다. 이날 오후 시작된 거센 비로 경기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시민들은



지난 21일 오후 KIA타이거즈와 삼성라이온즈의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린 가운데 광주 시내 곳곳에서는 열띤 장외 응원전이 펼쳐졌다.

양손을 모아 비가 그치기만을 기도하는 모습이였다. 비가 서서히 멎고, 오후 7시 20분께 한국시리즈 개막과 함께 경기가 시작되자 상영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KIA 선발투수 네일이 스트라이크를 잡을 때는 거센 환호가, 출루를 허용할 때는 장탄식이 흘러나왔다. 상영관 스피커에서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관중들의 응원소리와 겹쳐 마치 경기장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같은 시간 찾아온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서야 야외응원전이 펼쳐

졌다. 비바람이 부는 쌀쌀한 날씨도 타이거즈 팬들의 응원열기를 막을 수는 없었다. 팬들은 유니폼 위에 '타이거즈 가을 점퍼'와 외투를 겹겹이 끼입고, 푸드트럭에서 맥주와 간식을 구입해 대형 스크린 앞에 자리를 잡았다. KIA 타자들이 타석에 들어설 때면, 팬들은 응원봉을 높이 들고 박자를 맞추며 큰 목소리로 응원을 외쳤다. KIA 타자가 출루를 할 때마다 환호성과 함께 응원가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선발투수 제임스 네일이 아웃카운트를



잡을 때도 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응원봉을 연신 두드리며 경기에 몰입했고, 옆 테이블에 앉은 다른 일행과도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는 등 한마음 한뜻으로 타이거즈를 응원했다.

6회초 삼성라이온즈 김현근의 홈런으로 선제실점을 허용하는 순간 팬들은 머리를 감싸쥐었고, 호프집 내부에는 잠시 아쉬움이 가득한 한숨만이 흘러나왔지만, 이내 "괜찮다. 할 수 있다"며 의지를 다잡았다. 이후 다시 거센 비가 내렸고, 결국 오후 10시9분께 사상 초유의 포스트시즌 서스

펜디드가 선언되자 팬들은 아쉬움을 표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팬들은 이어지는 경기에서는 반드시 역전할 수 있다고 서로를 격려하며 승리 의지를 다졌다.

박준호(26)씨는 "팬광한 투수전이 이어져 긴장감이 가득한 상태로 오늘 경기를 지켜봤다. 찬스를 살리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며 "한점을 뒤진 상태로 경기를 재개하게 됐지만,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분이 든다"고 확신했다. **▶ 2면에 계속**

▶ 관련기사 4-14면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 2024 광주시장배 전국파크골프대회 '팡파르'

오늘부터 이틀간 서봉 파크골프장서  
528명 예선 통과... 총상금 3620만원

전국 파크골프 최강자를 가리는 '2024 광주광역시시장배 전국 파크골프 대회' 본선 무대가 23-24일 이틀간 광주 광산구 서봉 파크골프장(호남대학교 축구장 건너편)에서 펼쳐진다.

전남일보와 광주시, 광주시체육회 주최, 광주시 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4차례 예선전을 통과한 528명

이 출전한다. 예선 참가자 1600여명 중 30%만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자들은 4명이 1개팀씩 A·B·C·D그룹으로 나눠 18홀씩 이틀간 총 36홀을 돈다. 대회는 남·녀 개인전 스트로크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참가자가 다른 홀에서 동시에 티오프하는 '샷건 방식'이며 대회 순위는 타수가 적은 순으로 결정

한다. 남·녀 1위에겐 각각 700만원의 우승 상금이 주어진다. 2등 300만원, 3등 200만원, 4등 100만원, 5등 90만원, 6등 80만원, 7등 70만원, 8등 60만원, 9등 50만원, 10등 40만원씩 남·녀 시상자에게 전달된다. 총 상금 3620만원(예선 상금 포함)이 걸린 대회인 만큼, 본선 진출자들의 불꽃튀는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전국대회는 골프를 즐기면서 영산강변의 멋진 풍광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로 꼽힌다.

가을이 무르익는 10월 중순 영산강변은 황금빛 역사가 장관을 이룬다. 예선과 본선 기간 광주 곳곳에서는 불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됐다. 광주 비엔날레,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광주 김치축제를 비

롯해 2024 신한 SOL Bank KBO 한국시리즈까지 광주에서 치러진다. 파크골프 대회 자체만으로 선수단의 지역 내 장기 체류효과가 있지만, 대회 기간 참가자들을 관광지와 축제장으로 유입시키는 '스포츠 관광' 활성화에도 일조한다는 평가다.

한편 본선 대회 첫날 개회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이금용 대한파크골프협회장, 이용범 광주시파크골프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대회 이틀날에는 시상식과 푸짐한 경품 추첨 행사가 치러질 예정이다. **김성수 기자**



### 이순신장군 승진지순례길 걷다

출발시간  
매주 오전 10시

**다양한 기념품과 푸짐한 간식**

**EVENT 1 QR 사전접수 시 혜택**  
인수관리시스템은 다양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 상업, 산업 환경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여 그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플리 데스트 백을 해드려요!

**EVENT 2 행사 당일 무료 증정**  
뜨거운 햇빛을 피하는 방법은? 모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점이식 버킷넷 전원 증정!

**EVENT 3 완주자들을 위한 간식 증정**  
결승점에 도착하시면 푸짐한 간식들을 드려요!  
\* 반드시 접수 딱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